

“나는 생각할 수 있다”, 고로 장애물이 없다

-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명예와 이익을 좇는 생활뿐만아니라 그보다 더 높고 절대적인 생활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. 우리는 ‘영원’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꿈같은 세상을 초월하기 시작했다. 알고 보면 피안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.

생각은 우리를 무한한 경지로 인도하고
생명은 그 경지에서 자신을 초월하고
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경험한다.
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무한의 세계로 나아가라.